

## Session 05 사데 교회 : 영적인 본질 없이 명성만이 남음 (계 3:1-6) (SARDIS : Reputation without Spiritual Substance)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1-6)

### I. 주요 메시지

- A. 이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활발한 헌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약 40여 년 전(AD 52-55년) 온 아시아를 휩쓸었던 에베소 대 부흥(행 19-20장)으로부터 부여된 것이었다. 그들은 이 부흥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유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갔다. 그들은 부흥에서 세워진 과거 수 십년 전의 명성 위에 살고 있었다.

*...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10 이같이 두 해 동안 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행 19:9-10)*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 29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 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31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행 20:28-31)*

- B. 사데 교회는 그들을 핍박한 외부의 대적들이 없었으며,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내부에서 음행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도 없었다. 그들의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들 스스로에게 있었다.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만지셨는지와, 그들이 과격한 헌신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시간들을 잊어버렸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서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 C. 사데는 부유한 도시였으며,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기에 난공불락인 곳이었다. 사데는 어머니 여신 시벨라(시벨레)를 열심히 숭배하는데 곳이었다.

### II.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

...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 (계 3:1)

- A.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 계시며, 이를 통해 이들에게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들을 풀어 놓으신다.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사 11:2)*

- B. 예수님께서서는 일곱별을 쥐고 계시며, 이를 통해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손으로 잡고 계시며, 그들을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신다. 일곱별을 쥐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리더십들의 생명과 마음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손에 있는 별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기를 원하신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천사, 메신저)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계 1:20)*

### III. 충성됨에 대한 칭찬 : 없음

### IV. 타협에 대한 책망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계 3:1-2)*

- A.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 그들은 위대한 아시아의 부흥 뒤에 있었던 자신들의 헌신의 역사로 인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 B. (그러나) 죽은 자로다 - 그들은 거듭났으나,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과 영감이 떨어졌다.
- C.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 그들의 순종은 성숙하지 못했으며 온전하지 못했다. 우리는 온전하도록 부름 받았다(마 5:48). 이는 우리 삶의 각 시점에서 성령님께서 비추어주시는 모든 조명하심 안에 걸어 나가며, 각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위에 걸어 나가기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 V. 반응하며 나올 것을 권고하심 (경고와 함께)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한글 KJV, 기억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 3:2-3)*

- A.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오심을 각 개인과 교회 가운데 “도적같이 이르는” 것으로 비유하신다. 그분은 도적이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마치 “도적”과 같다. 이는 속담식 표현으로써, 그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와 방법으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음을 말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어 있었다면 회피하는 것이 가능함을 말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자신을 절대 도적이라 부르지 않으셨다. 오히려 사단을 도적이라 부르신다(요 10:10). 우리는 “단지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도적으로부터 강탈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깨어 있지 않는 것은 도적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도록 그냥 두는 것이다.
- B. 예수님의 오심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교회의 휴거를 위한 그분의 종말론적인 재림이며, 둘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의 때를 맞이하는 때이며, 셋째는 우리 삶의 “전략적인 시간대에” 우리를 높이거나 낮추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 C. 원칙 :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삶의 “전략적인 시간대”에 오셔서 우리를 높이시며(하나님의 은혜를 증가시키는 시즌을 풀어놓으심으로), 우리를 낮추신다(우리를 주권적인 다루심의 시즌 아래로 이끄심으로).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충성됨을 요구하신다. 만일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겪을 “고통스런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될 것이다.
- D. 깨어있으라(Be watchful) - 이는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의 라이프스타일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가며, 기도와 금식, 순종의 라이프스타일을 기경해나감을 의미한다. 이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외치고 계시는 주된 부분이다(마 24:42-43; 25:13; 막 13:33-37; 눅 21:36; 계 3:3; 16:15). 바울 또한 교회를 향해 깨어있으라고 외쳤다(행 20:31; 고전 16:13; 살전 5:2-4,6).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한글 KJV,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 35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 깨어 있으라 ... (막 13:33-37)*

- E.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 이 말씀은 그들을 다시 한 번 굳세게 하시기 위함이다.
1. 규칙적으로 말하라 - 당신의 비전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말하라.
  2. 지속적으로 행하라 - 당신이 말하는 가치를 당신의 개인의 삶 가운데 녹여내라.
  3. 조직적으로 강화하라 - 당신의 공동체에서 이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역 리더십들을 교체하라.
- F.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한글 KJV, 기억하고) -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지셨는지와, 아시아 대 부흥 때의 헌신을 기억하라(행 19-20장).
- G. 지키어(표준새번역 : 굳게 지키고) -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와 관계없이, 이전의 헌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으라.” 굳게 지키라는 말은 외부의 흐름에 저항해나가며 인내할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다.

- H. 회개하라 - 현재의 삶에서 더 많은 편안함과 명성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더 큰 비전을 품으라.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약속을 잡는 것에 당신의 삶의 비전을 두라.

## VI.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 : 세 가지 약속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4-6)*

- A. 예수님은 깨어있는 삶을 계속해나감으로 영적인 죽음을 극복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상급을 약속하셨다. 이 세 가지 상급은 우리의 입는 것과, 우리의 이름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될 부분에 대한 것이다. 이 셋은 우리가 이생을 통해 이루어 나온 모든 순종을 나타내게 된다.
- B.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 흰 옷은 값없이 주시는 의의 옷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칭의(의롭게 됨)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의 존귀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다(엡 2:8-9; 디 3:4-7).
- C. 이 옷은 각 신자들의 헌신을 나타내며, 우리는 이생에서의 삶의 어떠함에 따라 각자 다른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 19:8)*

- D.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의 옷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복에 부여하시는 가치를 엿볼 수 있으며, 각 의복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다(출 28:1-43). 이 의복들은 독특한 각각의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의, 흉패, 에봇, 겹옷, 속옷, 관, 띠, 면류관).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3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겹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 40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 42 또 그들을 위하여 베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출 28:2-4, 40-42)*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속 6:11)*

- E. 구약 제사장들의 옷은 여러 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었다(홍색, 청색, 자색, 흰색 등)
- F. 흉패는 에봇 위에 두었으며, 어깨에는 호마노 조각들을 두었다. 에봇은 겹옷 위에 입었으며, 겹옷은 속 옷과 속바지(고의) 위에 입었다.
- G. 계시록에는 다가올 세대에 우리가 입게 될 옷에 대한 언급이 8번이나 나와 있다(계 3:4-5,18; 16:15; 19:7-8; 요한일서 2:28; 요한이서 7-8절도 참고할 것).
- H. 여기서의 “흰 색”은 옷의 광채를 말한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하는 것은 옷의 광채이다. 모든 이들은 각기 서로 다른 광채를 가지는, 종류가 다르며 독특한 디자인과 소재와 색깔과 향기가 나는 옷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다가올 세대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위치와 성숙함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고전 15:40-42)*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 17:2)*

*주께서 옷을 입을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시 104:2)*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 15:6)*

- I. 새 예루살렘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난다(계 21: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계 21:11)*

- J. 성도들은 각각 흰 옷을 입게 된다. 흰 옷은, 이것이 깨끗하며 정결함을 의미한다. 옷의 광채는 다가올 시대에 우리가 입게 될 옷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 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 7:9-14)*

- K. 하나님의 백성 각자는 하나님 안에서의 서로 다른 여정을 겪게 되며,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드렸던 헌신의 서로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옷을 받게 될 것이다.

- L.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와 관련된 색은 벽옥, 홍보석, 녹보석과 남보석(사파이어)이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다이아몬드)과 홍보석(적색)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는데 그 모양*

이 녹보석 같더라 (계 4:3)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겔 1:22, 26)

M. 우리의 의복은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다양한 일만큼이나 다양한 종류가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왕이나 대통령은 행사에 따라 다른 옷을 입는다. 집에 있을 때, 사무적인 회합에 참여할 때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군사적인 역할을 할 때 왕은 각기 다른 옷을 입는다. 때로 그들은 옷에 훈장과 같은 장식을 달기도 한다. 또 어떤 때는 매우 편한 옷을 입으며, 어떤 날은 정장을 차려입고 결혼식에 참여하기도 한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옷이 필요하게 된다.

## VII.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실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 3:5)

- A.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 이는 그들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음을 말한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그들의 구원과 관련된 언급이 아니다. 일곱 교회에서 약속된 상급들은 모두 긍정적인 약속들이다. 어떤 사람의 이름과 성품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의 실체이다.
- B. 이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도시들에는 도시 등기(등록)제도가 있었다. 이는 시민들의 행적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세금 납부와 사회 기여도, 범죄 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 C.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헌신 가운데 걸어간다면 그들의 옳은 행실을 “기억된 기록”에서 흐리지(지우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 D. 하늘의 책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실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간직하고 있다.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표준새번역 : 비망록, 한글 KJV : 기념의 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 3:16)

- E. 원칙 : 우리의 옳은 행실들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가 그에서 돌아서면 흐려지게(지워지게) 된다. 에스겔은 의인이 의로운 행실에서 돌아서면 그가 죽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고 잊으시는지”를 가르쳐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계속해나가는 좋은 행실의 “결말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행실에서 돌아설 때 이것들을 “잊으신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

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 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겔 3:20)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겔 18:24)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도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 20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겔 33:13-20)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2)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3)

- F. 영원한 상급은 우리가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좋은 행실을 계속해나가는 “결론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좋은 행실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이 행실들을 잊으신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 3:11)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전 3:14-15)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요이 8절)

- G.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 이는 구원에 대한 언급이 아닌, 특별한 충성됨과 거룩에 대해 공개적인 시인을 받는 상급을 말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과 순종에 대해 기쁨으로, 몇 번이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한글 KJV :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마 25:21)

- H. 종교개혁은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값없는 의의 선물인 칭의의 진리를 영광스럽게 강조했다(롬 3:21-31; 고후 5:17-21).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잘못 적용한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을 드렸는지에 상관없이 말이다.

- I.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옷들을 받기를 원하며, 내가 행한 일들을 기념하시는 상급들을 모두 받

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말씀하실 감동적인 증언을 듣기를 원한다.

## VIII.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부흥하도록 성령님의 일하심을 풀어놓으실 것이다.

...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 (계 3:1)

여호와와 그의 신(성령님과 동역하심)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사 11:2)

- A.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이를 통해 그들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일곱별을 가지고 계심은 그분이 리더십들의 생명과 마음에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의미한다.
- B.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강림하신다는 것은(머무신다는 것은) 우리와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지칭한다. 그분은 실제적인 인격과 실제적인 친구로서 우리와 교통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해 그분에게 시간을 드려야만 한다.
- C.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도록 하실 것이다.
- D.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시각과,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시각을 주실 것이다.
- E.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모략(조언)을 주셔서,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알도록 하실 것이며, 우리가 승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시행 계획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조언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취해나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가며, 섬기며,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등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예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정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거나, 우리가 누구에게 “yes”라고 해야 할지를 묻거나, 우리가 누구와 마음을 함께하며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할지를 물을 때 그분은 우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 도우실 것이다.

...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한글 KJV :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 14:26)

- F.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능력<sup>1)</sup>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 우리가 의 가운데 한결 같으며, 죄를 저항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며, 거절과 고통과 외로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

1) 한글 KJV : 능력, 표준새번역 : 권능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엡 3:16)*

- G.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실 것이다(사 11:9).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 하시느니라 (고전 2:10)*

- H.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두셔서, 우리가 그분의 위엄 앞에서 떨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떨게 될 때, 우리의 순종은 한층 더 쉬워진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렘 32:40)*

- I.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의 사역의 일곱 가지 측면을 모두 풀어놓으셔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게 서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깨어있으며, 기도의 삶을 기경할 것을 요구하신다.

## IX. 사데 교회를 통해 예언적으로 선포된 시간대

사데 교회에 선포된 메시지는, 교회 역사 가운데 대략 AD 1517-1750년경의 시간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는 암흑기 바로 이후에 시작된 종교 개혁 시기이다. 이 시기는 깨어있음과 초대 교회의 권능에 대한 기억을 등한시함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한 생명력이 결핍된 시기였다.